

## 제8장 감리교회의 후기사역

동석기 목사는 삼일 만세운동으로 옥중생활을 하던 중 1919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압력으로 인해 삼일 만세운동 여파로 남양교회 담임목사직과 일병(日兵)이 파괴한 제암리교회 순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1919년 11월에 개최된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12회 연회에서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파송을 받았다. 이어 이천읍교회[利川邑教會,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75번길 6(관고동) 이천중앙감리교회] 제9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그는 1920년 10월까지 약 1년간 시무하였다. [「이천중앙감리교회 연혁」; 「조선미감리교회 12회연회록」(1919.11.)]



이천중앙감리교회 예배당(이천중앙교회 홈페이지)

동석기 목사는 1920년 10월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13회 연회에서 이천읍교회를 사임하고, 충청남도 공주지방으로 파송을 받았다. 이어 연회 폐회 직후 청양교회[靑陽教會,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2길 43(읍내리) 청양감리교회]의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였다. 취임 후 동석기는 청양교회에서 심혈(心血)을 기울인 목회와 교육 사업을 위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청양감리교회 연혁」; 「조선미감리교회 13회연회록」(1920.10.)]

첫째, 1909년 설립된 청양교회는 11년 동안이나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회였다. 그런데 동석기 목사가 취임한 이듬해인 1920년에 예배당을 최초로 아담하게 건축하였으며, 역사적인 헌당식도 거행했다. [「청양감리교회 연혁」.]

둘째, 동석기 목사는 1921년 여름에 청양군 여자교육 기관인 ‘여자강습소(女子講習所)’를 설립하여 문맹퇴치(文盲退治) 및 소외된 여성의 인권 교육에 앞장섰다. 그리고 1922년 1월 13일(금) 운영이 어려운 여자강습소의 경비 모금을 위하여 ‘청양군 여자강습소 후원회’를 창립하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면서 각계각층(各界各層)으로부터 관심과 후원을 끌어내기도 했다. [『동아일보』, 1922.1.26.] 이러한 그의 활동에 대하여 『청양신문』(2009.10.19)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어 그의 업

적을 기렸다.

“1920년 동석기 목사가 감리교회로 부임한 후 청양 지역은 새로운 도약(跳躍)의 계기가 마련됐다. 청양교회는 여자중학교(여자강습소)를 설립하는 등 지역의 인재를 교육하는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청양감리교회 예배당(청양신문, 2009.10.19.)

셋째, 1921년 9월 9일(금) 청양교회 예배당에서 여자강습소 주최로 개최된 음악회가 동석기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므로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참석자들로부터 상당수의 의연금(義捐金)도 접수되어 학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아일보』, 1921.9.9.] 이러한 동석기의 노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는 민족운동의 하나인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

(朝鮮民立大學設立運動)’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1922년 일제가 공포한 ‘개정조선교육령(改正朝鮮敎育令)’에 따라 관립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설립을 추진하자 이상재(李商在)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때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교육(民族敎育), 민족간부(民族幹部)의 양성을 목적’으로 순수한 조선 민족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를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23.3.8.]

**謹告二千萬父老兄弟姊妹**

各團體及各團體之代表者... (text continues in vertical columns)

**民立大學期成準備會**

京城府水鏡町四二朝鮮敎育協會內

**알림 이천만 부모형제자매에게**

각 신문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민립대학 기성준비회를 조직하여 전국 각 단체에 공명되기를 요청하였던 바... (text continues in vertical columns)

**민립대학기성준비회**

경성부 수표정사선이 조선교육협회내

왼쪽은 동아일보 1923년 1월 8일자 3면에 실린 민립대학 기성준비회의 광고, 오른쪽은 광고의 현대어 번역.  
(동아일보, 2020.11.10. 한 끼에 한 숟가락씩 쌀 모아 민족대학 세우려 몸부림)

민족주의자들은 먼저 1920년 6월 26일(화) 윤치소 [尹致昭, 1871.~1944. 윤보선 대통령의 부친, 장로]의 집에서 100명이 모여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 성립 발기회

를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1922년 1월 남대문동 식도원(食道園)이라는 요릿집에서 ‘조선 민립대학 기성 준비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이어 1923년 3월 29일(목) 발기인 1,170명 중 462명의 대표가 조선 중앙 YMCA(현 서울YMCA) 회관에서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동아일보』, 1923.3.30.]

이때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고 “조선 1,000만 민중이 1원씩!”이라는 구호로 1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아 법과, 문과, 경제과, 이과, 공과, 의과, 농과 그리고 기타 학과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주의자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므로 중단되고 말았다. [손인수(1971),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77~180.] 이러한 동석기 목사의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조선 민족을 위한 왕성한 활동은 일경의 감시를 받기에, 충분했기에 구금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 것으로 『동아일보』(1921.9.20.; 1921.9.27.)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남 홍성군 서문 외 예배당(현 홍성제일감리교회 예배당)에서 공주지방회가 9월 15일(목)부터 모여 사무들을 처리하였다. 16일(금) 오전에도 계속하여 회무를 처리한 후 휴식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홍성경찰서에서 나와서 청양주재 목사 동석기를 데리고 가더니 곧바로

구금(拘禁)하였다. 이때 김병제, 김동섭 등이 왜? ‘데려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다만 조사할 일이 있어서 강제 연행한다고 하였다.”

“지방회 사무처리 중에 갑자기 체포(逮捕)되어 구금된 동석기 씨는 25일(주) 오후 4시에 무사히 방면(放免)되었다. 그 이유는 법률상으로 저촉되어 체포 구금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불온한 말들을 한 점이 있어 조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된 일경의 감시로 인해 동석기 목사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먼저 심혈을 기울여 목회하던 청양교회를 1922년 10월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 15회 연회에서 사임하였다. 이어 ‘자유로운 독립운동’을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워 조선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만주 선교사를 지원하여 파송을 받았다. 여기서 감리교회의 만주 선교는 조선 미(남) 감리교회가 조선 미(북) 감리교회보다 1년 8개월 정도 먼저 시작하였다. [「조선 미감리교회 15회연회록」(1922.10.)]

조선 미(남) 감리교회에 의한 만주 선교는 1908년 9월 18일(금) 이화춘[李和春, 1871.~1956.] 목사가 연회에서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므로 시작되었다. 그러

나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듬해인 1909년 선교에 대한 모든 일체를 장로교회에 있는 그대로 맡기고 이화춘 목사가 철수하므로 중단되었다. 그러다 11년 후인 1920년 10월 6일(수) 종교감리교회의 양주삼(梁柱三) 목사가 크램[Willard G. Cram, 기의남(奇義男), 1875.~1969.] 선교사와 함께 만주 지역을 시찰(視察)한 후 1921년 7월부터 선교를 다시 시작하였다. [유동식(2009), 『한국감리교회의 역사Ⅱ』, Kmc, 119.]

조선 미(북) 감리교회에 의한 만주 선교는 1910년 5월에 손정도[孫貞道, 1882.~1931.] 목사를 연회에서 최초로 파송하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가 사상범(思想犯)이라는 이유로 인해 1912년 일경에 체포되므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6년 후인 1918년 6월에 연회에서 배형식[裴亨湜, 1874.~1955.] 목사를 두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므로 중단되었던 선교가 재개(再開)되었다. 배형식은 1921년까지 약 3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장춘(신경), 하르빈, 사평가, 공주령, 진가돈, 영고탑, 철령, 그리고 무순 등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동석기 목사는 1922년 10월에 연회에서 만주 선교사로 파송되어 영고탑교회(寧古塔教會)를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김의환, 「선교사적 측면에서 본 한국교회 1백주년」, 『크리스천투데이』(2006.6.3.)] 그는 1927년 10월까지 5년 동안 왕성한 사역을 하였는데, 그의 왕성한 사역 가운데 주요(主要)

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23년 7월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16회 연회에서 대 총회(동아총회)의 부 총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924년 제17회 연회에서는 재단법인(財團法人)에 대한 조사위원으로 피선(被選)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동석기는 소속 교단인 조선 미(북) 감리교회에서의 위치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조선미감리교회 16회연회록」(1923.7.); 「조선미감리교회 17회연회록」(1924.7.)]



영고탑총람도(한국학중앙연구원)

둘째, 1924년 1월 29일(화) 오후 4시에 봉천구역(奉天驛構) 내 대화(大和) 호텔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선교지역예양협정[禮讓協定, mission area comity arrangement, 교계예양(敎界禮讓)]’에 들어갔다. 이때 동석기는 조선 미(북) 감리교회 선교사 대표로 참여하여 협의하므로 선



교사로서의 사역에도 두각(頭角)을 나타냈다. [『동아일보』 (1924.2.3.), ‘선교사회의’]

셋째, 1925년 제18회 연회에서는 영고담교회 예배당 구내에 영동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건물(교사) 건축비에 대해 보고를 하는 등 교육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는 영동학교를 통해 조국을 잃고 타국으로 이주(移住)하여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 고취와 자주독립에 관한 교육에 전심전력(全心全力)하였다. [『조선미감리교회 18회연회록』(1925.7.)]

동석기 목사의 만주 선교사 시절에 있었던 특이한 점은 1925년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18회 연회에서의 그의 발언을 들 수 있다. 먼저는 ‘세례와 유아세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유아세례(an infant baptism)가 성서적인지? 아니면 비성서적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는 안수받지 않은 ‘담임자인 전도사에게도 세례식과 장례식을 집례(執禮)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에서는 왜? 전도사들에게는 금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였다. 이때 연회로부터 “규칙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개교회에서 결정하여 자유로 하되 신중히 하라.”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남양감리교회115년사』(2012), 200.] 이를 두고 감리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석기 목사는 이때부터 환원 운동에 관하여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으며, 그 관심으로 인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구자가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남양감리교회115년사』(2012), 200.]

동석기 목사는 만주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묵상(默想) 중에 문 듯 깨닫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조국과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이럴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본으로부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鬪爭)하는 ‘물리적인 독립’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처지에서 볼 때 ‘정신적인 독립과’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독립’이 조선 민족의 진정한 독립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영혼부터 맑아져야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맑아지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은 너무나 무기력(無氣力) 하지 않는가? 이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나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재충전(再充電)의 기회(機會)’를 갖는 것이다.” [서재룡, 「환원운동가 동석기」, 155~156.]

동석기 목사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무기력하므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장교육(延長教育)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1927년 조선 미(북) 감리교회의 만주 선교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정동감리교회에 적을 둔 ‘본처목사(本處牧師)’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연장교육을 받아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1927년 11월 만주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자에서 미(북) 감리교회 목회자로 만들어준 미국에 도착했다. 그러자 『신한민보』(1927.12.29.)는 동석기에 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실었다.



『신한민보』(1927.12.29. 동석기 목사 교회 심방)

“약 10년 전에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선교 사업에 종사하던 동석기 씨는 약 1개월 전(1927년 11월경)에 워싱턴주(Washington) 시애틀(Seattle Harbor) 항으로 건너와 지금 위스콘신주(Wisconsin) 각 교회를 방문하여 조선교회의 사정을 소개하는 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신한민보(新韓民報)』는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국민회(國民會)의 기관지로 창간된 신문이다. 국민회는 하와이의 교포단체인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 1907년 9월 2일 미국 하와이에서 결성된 항일민족주의 단체]와 ‘공립협회’[共立協會,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되었던 항일운동단체]가 통합하여 1909년 2월 발족하였다. 이어 1910년 2월 국민회는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 19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와 통합하면서 대한인국민회로 출범하였다. 이때 한인합성협회 기관지 『한인합성신보(韓人合成新報)』[1907년에 창간한 하와이 교민기관지]와 공립협회 기관지 『공립신보(共立新報)』[1905년에 창간한 샌프란시스코 교포단체 기관지로 제118호까지 발행]가 통합되어 『신한민보』(제119호)로 발간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한민보’]